

# 강영미·유단우 펜싱월드컵 에페 단체전 금 합작

〈광주 서구청〉 〈전남도청〉

결승서 이탈리아 34-27 꺾어  
전남도청 최세빈도 맹활약  
여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 이혜인(강원도청·왼쪽부터), 유단우(전남도청), 송세라(부산시청), 강영미(광주 서구청)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 강영미와 전남도청 펜싱팀 유단우(이상 에페)가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전남도청 최세빈(사브르)도 단체전 동메달 주인공이 됐다.

유단우와 최세빈은 1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 에페 단체전과 사브르 단체전에서 각각 우승과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강영미,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 유단우가 출전해 32강전에서 세르비아에 45-25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궤조의 출발을 했다.

16강전에서 이스라엘(45-42), 8강전 헝가리(36-33)를 접전 끝에 물리치며, 준결승에 진출한 여자 에페 대표팀은 에스토니아에 45-44로 꺾고 결승에 올라 펜싱 강호(세계랭킹 2위) 이탈리아를 34-27로 꺾고 단체전 우승과 함께 시즌 첫 월드컵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강영미는 같은 대회 월드컵 개인전에서도 나탈리에 모엘라우센(브라질)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윤지수, 전하영(이상 서

울시청), 전은혜(인천 중구청), 최세빈(전남도청)이 팀을 이뤘다. 유단우(전남도청), 송세라(부산시청), 강영미(광주 서구청)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결승에서 불가리아에 39-45로 패하며 3-4위전을 치렀다. 이어 3-4위전에서 헝가리를 상대로 45대 41로 승리하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세빈은 지난해 알제리 월드컵에 이어 국제대회에서 2연속 입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계올림픽 개최지 부족 평창 등 순회 개최할까

IOC 검토 가능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의 부족으로 인해 몇몇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을 돌아가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P통신은 14일 "동계 올림픽을 열겠다는 도시가 부족해, 몇몇 도시가 순환하며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장 비용 등이 치솟으면서 동계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가 부족해졌고, IOC는 고정적으로 동계 올림픽을 순환하며 개최하는 도시를 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북미의 솔트레이크시티와 밴쿠버, 아시아의 평창, 유럽의 스위스와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등이 후보 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국가 또는 도시 이름까지 거론했다.

은퇴한 '스키 여제' 린지 본(미국) 역시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와 대회를 치를 시설 등의 문제로 인해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순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의 2030년 또는 2034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본은 "일단 2034년 대회까지는 순환 개최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동계올림픽은 2018년 강원도 평창,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2026년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다페초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동계체전 컬링 혼성4인조 결승에서 전남이 강원을 상대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장애인동계체전 역대 최다 득점 종합 4위

컬링·아이스하키 등 단체종목 선전  
15위 광주 득점 대폭 상승 '열정상'

전남 선수단이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득점으로 종합 4위에 올랐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 10~13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따내 종합득점 1만2995점을 획득, 종합 4위에 올랐다.

지난 대회 6위였던 전남은 순위를 두 단계 끌어 올렸다. 청각장애컬링팀, 전남장애인아이스하키팀, 휠체어컬링팀 등 단체종목의 선전이 종합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전남은 동계 훈련장이 타 시도를 전전하면서 훈련해 이같은 성적을 일궈냈다.

전남은 선수 최다출전 사도 가운데 동계 스포츠 인프라 등 여건이 어려운 도시에 주는 '도전상'을 받았다.

값진 메달도 잇따라 나왔다. 신설 종목인 휠체어컬링 2인조(방민자·정승원)에서 첫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휠체어컬링 4인조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4인조 휠체어컬링팀(정승원·노병일·방민자·정영기·민병석)은 8강에서 경남, 4강에서 서울을 꺾고 결승에 진출, 은메달을 따냈다.

유승엽(성인부)은 빙상(쇼트트랙) 성인부에 출전한 남자 500m와 1000m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

했고, 동호인부에 출전한 박정철(동호인부)은 남자 500m와 1000m에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최재형은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4km 클래식에서 12분6초6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종합득점 2665점)를 따내며 종합 15위에 자리했다.

종합점수에서 지난 대회 1214점 대비 1000여점 이상 상승한 광주는 '열정상'을 수상했다.

광주는 빙상(쇼트트랙) 1000m에서 김진영의 첫 금메달을 비롯해 윤좌현이 남자 성인부 500m,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세정이 여자 바 아이슬론 중거리 7.5km 좌식 종목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는 등 선전을 펼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제무대 퇴출 러시아, 남아시아 U-17 여자축구 출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선수단은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러시아 17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이 남아시아 대회에 출전한다.

남아시아축구연맹(SAFF)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월 20~28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2023 SAFF U-17 여자 챔피언십에 러시아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SAFF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다.

SAFF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에 러시아까지 5개국이 참가해 풀리

그로 우승을 가린다. 러시아는 3월 22일 방글라데시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부탄, 네팔, 인도와 차례로 맞붙는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FIFA와 UEFA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을 포함한 양 단체 주관 대회에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해 왔다.

러시아는 2024년 유로 선수권대회(유로 2024) 조 추첨에서도 제외됐다.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한 러시아 축구대표팀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연방국들과 비공식 친선 경기만 치렀다.

SAFF U-17 여자 챔피언십 참가로 러시아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연합뉴스



드리블 배우는 농구 꿈나무들 14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주최로 열린 W-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드리블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앤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메간
- 2관 앤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타이타닉
- 3관 타이타닉
- 4관 앤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 5관 앤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상견니
- 6관 앤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교섭
- 7관 씨네커플 에메이징 모리스, 두다다쿵: 후후섬의 비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 8관 씨네커플 영웅,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메간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062-526-0363